

mi s., 체온 36.5°C였으며 전신에 鱗屑(scale)이 있는 紅斑性 반점이 있었으며 紅斑이나 피부 부종이 심한 곳에는 膿疱가 산재해 있었다. 얼굴은 광택하고 부어 있었으며 결막에 경한 빈혈의 소견을 보였고 편도선이나 咽喉에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심장파 뛰는 정상이었고 간이나 비장은 촉진되지 않았으며 중풍도의 하지 부종이 관찰되었다. 입원 당시 검사소견으로 혈액검사상 WBC 16,000/mm<sup>3</sup>, Hb 10.4g%, Albumin 2.0g/dl, globulin 4.1g/dl, BUN 46mg/dl, creatinine 4.2mg/dl, Na 137mEq/L, K 6.8mEq/L, C<sub>3</sub> 40mg/dl, ASLO 250 Todd unit, 尿 검사상 비중 1.040, 단백(+), 당(-), 백혈구 多數/HPF, 적혈구 多數/HPF, 咽喉部 培養음성이었고 膿疱에서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가 培養되었다. 入院 5병일째 External shunt를 만들고 6병일째부터 주 3회의 血液透析을 시작하였다. 피부 병소는 血液透析을 시행한 후 1주째부터 피부 滲出이 줄어들고 육안상으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血液透析 3주째부터는 發赤 및 피부浮腫이 현저히 감소하고 4주째부터는 鱗屑(scale)을 보기 어려울 만큼 호전되었다.

— 30 —

### 만성신부전 환자들에서 시행한 혈액투석 및 혈액여과의 비교

한양의대 내과

박한철

3명의 만성신부전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혈액투석요법을 68회치료, 혈액여과요법을 51회 치료하여 두 치료법의 차이점을 검토한 결과 혈액여과법에서 보다 안정된 혈압유지와 치료중의 증상감소, 치료시간의 단축이 가능하였다. 혈액여과법의 가장 큰 단점은 치료비가 비싼 점이었다.

— 31 —

### 지속적 휴대용 복막투석 30예에 대한 임상 고찰

고신의대 내과

양상호 · 유호대 · 최광수

이원식 · 이재우 · 이시래

말기신부전증의 치료에 있어서 CAPD는 규칙적인

혈액투석과 그 효과가 비슷한 듯 하며 조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가정에서 환자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의 치료와 혈액투석에 잘 견디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다.

연자들은 1983년 4월부터 1984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고신의대 부속 부음병원에서 시행한 30예의 CAPD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 연령 분포는 최저 19세에서 최고 67세까지로 다양하였으며 그중 30대와 40대가 각각 8예(26.7%)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7예(23.3%)였다. 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22예, 여자가 8예였다. CAPD의 적응대상으로는 규칙적인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가운데 환자가 원해서 한 것이 13예(43.3%), 병원과 거리가 멀어서 규칙적인 혈액투석이 어려웠던 경우가 7예(23.3%), 당뇨병 혹은 여러 심폐 질환때문에 시행한 것이 각각 2예(6.7%)였다. 합병증으로는 전체 환자 30예 가운데 16예(53.3%)에서 발생하였고 그 종류는 복막염이 13예에서 14회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4.8개월에 평균 1회의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복막염의 소견으로 투석액 혼탁이 14회의 복막염 중 13회(92.9%)에서, 복통이 12회(85.7%)에서 그리고 발열은 4회(28.6)에서 나타났으며 투석액의 백혈구 수는 10회 검사에서 모두 100/mm<sup>3</sup>이상이었다. Gram 염색은 4회중 1회에서 gram 양성구균이 발견되었으며 투석액 배양검사는 13회 실시하여 4회에서 양성배양을 보였고 그 균들은 Staphylococcus epidermis, E.coli, Acinetobacter species, pseudomonas maltophilia가 각각 1예씩에서 발견되었다. 그 외의 합병증으로 catheter로의 심한 출혈 4예, 혈액 응고로 인한 catheter의 폐쇄 3예, catheter의 malposition으로 인한 poor drainage 2예, catheter 주위 부석액 누출 3예, 수술 봉합 부위로의 투석액 누출 1예, 교환 부종 1예, 난청 3예, 그리고 정신병이 1예에서 있었다. 이 중 치료에 저항하는 지속적인 복막염 2예와 catheter malposition으로 인한 poor drainage 1예에서 catheter를 제거하였다. 합병증을 일으켰던 2예에서 그 경과가 흥미로워 따로 보고한다. 첫째 예는 CAPD 수술 후 발생한 극심한 복강내 출혈때문에 지혈제(Gumbix® 50 ng)를 근육 주사하였더니 갑자기 catheter 내 혈액응고를 보이면서 배액 장애가 초래되었다. Heparin으로 용해물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urokinase 3,000 IU와 생리식염수 10 cc를 혼합하여 4시간 간격으로 3회 catheter 내로 주입하였더니 혈액응고가 소실되면서 정상적인 배액을 보이고 2일 후 출혈도 멈추었다. 둘째